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행복한가요?  
찾은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세련되게 노래하는 은공 교인들.  
아, 도대체 어느 교인들이 저토록 멋진거야.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 행함

# 10



2019

열 여섯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 이달의 행함킹: 김양중 목이 굽은 이유가 뭘까?

새벽 기도 시간, 뒤에서 보는 그의 목은 앞으로 많이 굽어 있었다.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가봐요.” 거짓말도 잘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컴퓨터 더 많이 하는 청년들 다 고개 못들겠다. 그래서 그의 말은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기도 많이하고 겸손해서 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목사님(김양중) 간증에 공감을 많이 하는지 알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해서야.”  
아내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나보고 김양중님만큼 겸손해 지라고? 바벨 걸 바래야지. 나는 아예 꿈도 꾸지를 않는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쓰다 보니 이하는 저속해서 생략. 여러분도 다 알 것이다.)

나나 그나 교회에서 똑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무어든 잘하고 나는 무어든 못한다.

“그 집 냉장고 바닥 나겠어. 무지 막지하게 퍼주더만” 그의 집에서 가진 목장 모임에 다녀온 친구가 사뭇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나 퍼주었으면. 어찌 퍼주는 것이 음식 만이라.

누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책만 빼고 다 퍼줄 사람이다. 아픈 사람있으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

토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한달에 한번은 맥도날드에 간다. 교인들 음식값 항상 그의 차지다.

이번에는 어림없다고 내 카드로 내는데 카드가 디클라인이 되버리네. 아니 전날까지도 잘 되던 카드가 웬일로 그날 아침 품 좀 잡으

려니 않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아는 그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김양중님을 내가 어떻게 당해? 진작에 포기하고 만다.



제일 왼쪽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분이 그 할머니께 모자를 하나 씌워 드렸다.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할머니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없다. 그저 햇빛 가려줄 모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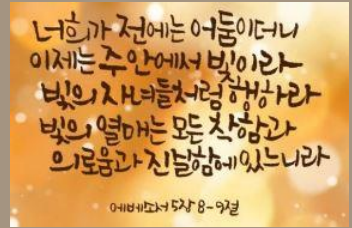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다가 주변에 늘 사랑을 베푼다.  
구누냐고? 비밀이다.  
그도 그렇게 한다.  
누구냐고? 그것도 비밀이다.

매맞는 남자  
동료가 걸핏하면 등을 때린다.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 맞고  
나면 맞사지 받은 것처럼  
시원하다.  
오늘도 그의 매는 계속되고  
있다. 맞사지에 사랑까지 담겨  
있음을 잘 안다.

매장에 오는 한 여성  
그녀의 곁에는 걷기 몹시 힘든 어머니가  
계시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자주  
매장에 나온다. 효녀다. 귀찮아서 혼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데 그녀는.

## 말 참기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결국 사람은 해야 되지 않을 말도 기어코 하고 그로 인해 나중에는 곤란을 당하게 된다. 회사에서 동료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성격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성경에 '입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참아 보았다.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네. 예수 믿으면 이리 쉬운 것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 사람 전도했으면. 아, 나 참 잘난 것 같다. 말씀대로 했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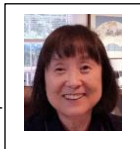
## 원손이 모르게 >>>

# 하나님의 은혜

### 강샘목사 이야기(2)

-유인영기자-

우리 목사님도 자부심을 갖고 하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아팠을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하찮은 일 그만두게 된 것 아쉬워 말고 앞으로 목사님은 그저 우아하게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하십시오. 제가 밑에서 머슴처럼 목사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는 항상 나보다 강해야만 하는 것 처럼 목사님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날 목장 예배를 끝내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집단 비정상

비신자들을 위한 가을 예술제를 가졌다. 정말들 잘했다. 비신자들을 위한 행사인만큼 세상 노래, 세상 연극, 세상 시 등으로 행사를 하는 데 이견 프로들이 울고갈 수준이다.

테이블에서 부터 달랐다. 그저 비신자(이하 VIP)들을 위한 잔치라고 호화롭기 그지 없었다. 화려한 무대(?)에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서 조용히 뒷 일 다 해내신 안덕희님의 헌신은 단연 갑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날 행사 준비한 사람 중에 제일 예뻐하셨을 것 같다.

공연은 이견 뒤 최고 수준이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젊은 청년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의 노래와 춤은 중독 수준이었다. 사모님들의 시낭송은 천상의 음성으로 들렸고 7080은 청중의 마음을 훌쩍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행복이라는 이 번 행사의 주제를 찬양으로 표현한 어느 교인은 어디서 그 매력적인 음성을 받아왔는지. 연극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이고 정말 치기 힘든 리스트의 곡을 연주한 피아노는 정말 훌륭했다. 이 모든 순서를 차분하고 수준 높게 이어간 사회자들은 아나운서 뺀을 쳐도 열번도 더 칠 정도였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갑은 두 목사님의 노래와 메시지였다.

많이들 말했다. 뭐 내가 기획을 잘해서 그렇대나 뭐래나. 자기들이 다 잘해 놓고 연극과 사회 대본 좀 쓰고 편편 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집단 비정상이다. 그러나 저러나 정말로 다들 너무 잘했다.



# 선교 소식: 조이 우간다 도서관

## 도서관을 통해 학생들 학업 도우미 역할

조이 우간다가 우간다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도서관 사역입니다. 우간다의 교육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육 교육환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유리창이 제대로 달려 있는 교실을 보지 못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간다 부모들이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공립학교가 부실 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사립학교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비가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학교에 아이들 보내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 우간다가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테이스쿨 과정을 통해 공부를 시킨 후에 장학금을 확보하여 정규 학교로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조이 우간다 도서관 사역은 소로티 주역으로 도서관을 옹기고 소로티초등학교 협력 사역을 하면서 제 2기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학교 도서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학령들에게 오픈하는 지역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력 사업을 하게 된 이상철 선교사는 조이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군데씩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욕심

인간의 욕심은 아무도 못 말린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욕심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욕심, 죄, 사망 이 세가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인생의 굴레다. 하나님을 이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셨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으로 초청하신다.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가나: 크리스 인세수 선교사

목자: 안예림

- 크리스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 OM 단체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 교회 개척, 무슬림 지역 성경배포, 단기 선교, 지역 변화, 정의와 구제사역, 지도자 개발 및 훈련
- 미전도 종족 전도



#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이런 카톡을 받았네요 >>>

-강수잔기자-

지난 29 일에 은공 가을 예수제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다음날 아침에 교회와 행사에 힘을 주는 카톡을 받아서 이곳에 소개합니다. 아름다와서 받은 그대로 올리니 편집진 노타치 플리스.



아침에 눈을뜨니 우리가 어젯밤 꽃마차 타고 꽃길을 달려온 느낌이에요. 수잔의 찬양 끝끝 쫓해지는 성령님 감동이었구요. 목사님 메세지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놀다가 저녁엔 들어가 쉬을 할수있는 집이 있음 감사했듯이 아버지 집으로 갈수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 세상에 오신 그이름 귀하신 예수 예수... 따따봉 메세지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탕큐 탕큐... 주차장까지 그릇 날라주며 찬절주신 김양중님께도 감사 전해주세요..-젼마-

수고들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웃다 - 정도 하구요. 김양중 목사님 제가 바지입고가서 한쪽 걷어올리구 박수 친거 안보셨나요? 보통 교회 가면 노인들이 과반수인데 특이하게 모두들 젊은분들이였어요. 좀더 많이 봉헌 할수있는 능력을 주십사 기도 원 세워봅니다.너무 잘먹구 좋았습니다. 꽃싸리 유인영 집사님 미스했습니다 또 꽃싸리 아나운서 최은숙 자매님 너무 예쁘구요. 다 일일이 짚어네기 힘드네요 모두모두 사랑받을 만큼 잘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성-

### 왜 순종하여야 하는가?

(지난 달에는 목사님의 칼럼이 가을 VIP 초청 관련 내용들이어서 지난 달 목회 칼럼을 다시 올립니다.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재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평신도가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목회를 했던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책임자인 목자는 목장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기에 목자는 자신이 가정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원의 개인적인 상담이나 심방 그리고 축하 예배는 당연히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역시도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원들은 무슨 일이든 목자와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에게 기도 부탁 등 알려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도 목자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임목사가 목원 개인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위로하거나 축하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목장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편집 후에

-편집 담당 김양중님께 또 야단맞게 생겼다. 너무 늦어서 손볼 시간 너무 짧게 주었다고. 에이그 이 게으름병 언제 고쳐지나.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다. 지는 것이 저리 아름답다는 것이 신기하다. 살아가는 데서 욕심없이 저야할 것들이 참 많다. 욕심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다.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내려 놓을 것 내려 놓기를 잘 한다면 사람들도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 내가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행함'이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 일이다.

-외부 필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부에서만 내보내기 보다는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내보내는 일도 많아졌음 좋겠다.

-이제 10 월호를 마쳤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 은혜공동체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강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